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다음 총선에서는 탁류를 걸러내자

이제 제법 서늘함이 느껴진다. 밤에는 문을 닫고 이불까지 당겨질 정도로. 물론 한낮에는 아직도 무더위가 여전한데는 하지만, 여하튼 이제

는 살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이상한 작태들이 다시 폭염을 느끼게끔 한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한다는 작자들 때문에 말이다.

특히 거대야당의 일부정치인들은 의계인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었을까. 전직 고위 검사를 지냈을까. 도지사들 비롯한 중량감 있는 정치인 또는 고위관료, 재계의 거두, 각종 사회단체 등의 리더를 지냈을까. 수많은 의원들이 주마등처럼 뒤따른다.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해답을 찾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것 아닐까.

며칠 전, 자유한국당 김문수 씨의 입에서는 빨갱이라는 말이 도리깨질 듯이 튀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그렇다면 이 정부를 탄생시켜 준 촛불혁명은 뭐란 말인가. 빨갱이들의 칼춤이었던 말인가. 참으로 어이가 없다.

같은 당의 김무성 의원을 향해서도 "김무성 당신은 앞으로 천 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독설을 뱉었다.

이렇게 만나니 칼춤 치듯 좌충우돌하는 이유가 뭘까.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의 수많은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고 국민들도 탄핵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실행했던 것 아닌가. 그런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하고 이렇게 이미 결론이 나서 흘러가 버린 강물 아닌가. 어떤 경우에도 결코 되돌릴 수 없

는 불가역적인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다. 물론 김문수 씨도 이를 모를 리 없다. 그 정도의 머리는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그렇까. 추측컨대 어떻게든 다음 총선에서 살아남고자 함이 아닐까. 대구·경북의 정서에 기대서.

사실 김문수 씨는 다 죽은 구 정치인 아닌가. 퇴색될 대로 퇴색돼버린. 어찌 보면 참으로 불쌍한 남인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하고 다니는 꼬라치니 자체가 그렇다.

그도 한때는 운동권이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변색되기 시작하더니 결국 저렇게까지 망가져버렸다. 정치적 백골이 돼버린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면서까지 게거품을 뿜어내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게걸스럽다. 만약 김문수 같은 부류들이 살아나서 정치계에 다시 등장한다면 단언컨대 대한

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운동권이었던 사람들이 변질하면 그 누구보다도 모질고 흑독하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다.

자유한국당에는 제법 이런 부류들이 있다. 이제오 씨 등을 비롯해서 이런 부류들의 대부분은 연대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연대감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을 못한다.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삶을 펼치는 데만 몰두하기 때문이다. 유아독존적으로.

제발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사람을 뽑자. 주력해 보자. 학연·지연·혈연 의식 등은 모두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폭염에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깨어나야 한다. 좀 더 대국적인 견지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오랜 세월동안 민초들은 수많은 고초를 겪어왔잖은가. 역사적으로도.

임으로는 국민을 위한다면이라도 자신들의 입신양면만을 위해 눈을 번득였던 게 일부 몰지각하고 악랄한 정치인들이었다. 모든 방법을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 나가면서. 때문에 이런 탁류들을 걸러내자 말이다. 바로 지금부터. 위정ชน 그들의 술수에 놀아나지 말고.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 때문이다.

社說

폭력 전과자 국제결혼 막아야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다. 웬만한 시군단위 지방에 다문화가정의 수는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산재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다양한 이유로 인한 가정폭력이다. 특히 한국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가정폭력 전과자는 국제결혼을 위해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지만 올바른 대처로 평가한다.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기로 했다.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초 베트남 이주 여성이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 퍼지면

서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 체류기간 등이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종속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주한베트남대사관 등과 간담회를 열고 결혼이민자의 비자, 체류, 국적제도에 대해 검토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결혼이민자가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 한국인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아도 된다. 혼인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제출만으로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자녀를 양육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입증되는 경우 최초 외국인 등록부터 3년간 체류기간을 부여한다.

한국인 배우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결혼생활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청에 실체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농경문화의 산물 반주 한잔! 사람 잡는 낫술이 될수도

농촌에서는 오토바이와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이용하여 농사일을 하러 인근 논밭에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때 오랜 풍습처럼 일부 농민들 사이에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 피로를 잊기 위해 점심때 막걸리 등을 곁들인 새참을 먹곤 한다.

뜨거운 태양빛에 일하다보니 시원한 막걸리와 맥주 한잔은 그야말로 꿀맛일 것이다.

하지만 자칫하면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독약이 될수 있음을 간과하는 사람들도 많다. 한잔이건 두잔이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는 경우도 분명 음주운전이

때문이다. 이미 공지가 되었듯 이번엔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발표되었다. 우선 늘어겨를 대폭은 음주운전시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하향되면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 수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반주로 마신 술한잔에도 단속수치에 도달할수 있는 만큼 아무리 새참에 반주로 한잔을 마셨더라도 술을 마셨더라면 운전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논밭에서 고된 농사일을 하다가 새참으로 먹는 술 한두잔 씬이야 괜

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시골 파출소에 근무하는 필자도 순찰 중 마주치는 논밭에서 일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막걸리 한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다며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별로 개의치 않는 눈치여서 안타까움때가 많다.

실상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 농사일 중 반주에 대한 인식은 관대한 편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농촌지역에서 반주를 곁들인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인식은 자칫 자신은 물론 상대방에게도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를

당하게 하는 원인이 될수 있다.

농경문화의 산물인 반주는 잠시 피로를 잊게 하지만 판단력과 행동 제어 능력을 감소시켜 농사일 중 안전사고 위험도 그만큼 높아질수 있다.

오랜 풍습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새참에 마시는 술 한잔으로 어렵사리 취득한 운전면허가 정지되기도 하고 수백만원에 이르는 벌금에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상당히 엄청난 불행은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농민들께서는 술 한잔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한두잔의 반주일지라도 습관화 되면 내성이 생겨 양이 점차 늘어날 수도 있으니 반주의 중독성도 경계하길 바란다.

김승진 / 보성경찰서 예방파출소 경위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신고	182	▲인광알고올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 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 가 00021 (일간)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세(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